+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SBS 창사 20주년 기념식 개최

SBS

올해 창사 20주년을 맞은 SBS가 지난 8월 16일(월) SBS 목동사옥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사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오목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윤세영 회장은 "변화의 물결에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가 삶의 풍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계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재계에서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언론계에서는 김인규 KBS사장, 곽덕훈 EBS 사장, 김영일 BBS 사장, 이준호 TBS 대표, 구본홍 CTS 사장,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창사 20주년을 기념하여 17일부터 21일까지 오목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다. 목동사옥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는 오후 6시부터 특집 공개방송 '투모로우 페스티벌 콘서트'가 열렸으며, 이는 SBS 파워 FM(107.7MHz)과 러브 FM(103.5MHz)을 통해 방송됐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부터는 미디어 파사드,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등 국내 유수의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참여하는 '미디어 아트 전시'도 관람할 수 있었다.

사진제공 : SBS